

“봄철 미세먼지도 대응”

정 익산시장 “주춤했던 中 산업 가동… 준비 철저” 생산·판매·유통 시스템 구축…추경 만전 주문

익산시가 봄철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16일 열린 간부 회의에서 “예년 같으면 지금 미세먼지가 한창 극성을 부릴 시기.”라고 언급하며 “이제부터는 코로나19와 더불어 봄철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사전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공장·산업들이 꼽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중국의 산업들이 다시금 가동에 들어가는 추세인 만큼 3월말 정도면

또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정 시장은 “전자상거래의 성공적 안착과 로컬푸드 활성화가 우리지역 소농·고령농의 관로 확대 및 소득증대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생산은 농민이, 판매·유통은 익산시가 책임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과제에 이를 포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도 정 시장은 “이번 추경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들이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더불어 “비상근무는 물론 구내식당 휴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측면에서 직원들의 협조와 희생이 코로나19 극복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면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표했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31억 9천만 원, 수소자동차 37억8,000만 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확대 보급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친환경 천연가스 살수차 구입(2대),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 시민건강권 확보를 통한 환경친화 도시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장전·해이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순항

군산시, 마을쉼터 2곳·방범용 CCTV·가로등 설치사업 완료

군산에서 추진중인 산북동 장전·해이지구 도새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형)이 3년째 접어들며 결실을 맺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장전·해이지구 도새재생뉴딜사업은 지난 2017년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 2018년부터 2020년까지(3개년) 총사업비 63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건설, 생활편익시설정비, 지속가능한 주민자생조직 육성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마을쉼터공원 2개소와 방범용 CCTV 및 가로등 설치사업을 완료했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주차장조성사업을 착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월부터 노상에 배치돼 생활불편, 미관을 저해했던 농기구를 위한 소형농기구보관창고,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해이사랑방 조성사업 등 또한 행정처리가 마무리돼 공사 발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접 “공동화석산지 개발사업”의 이주민 주거공간 조성도 연계해

장전마을에 건립중인 LH공공임대주택(9세대) 또한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다양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실행계획변경 과정

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전망”이라며,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남은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에서 추진중인 산북동 장전·해이지구 도새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형)이 3년째 접어들며 결실을 맺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 ‘스마트 가로등’ 내달까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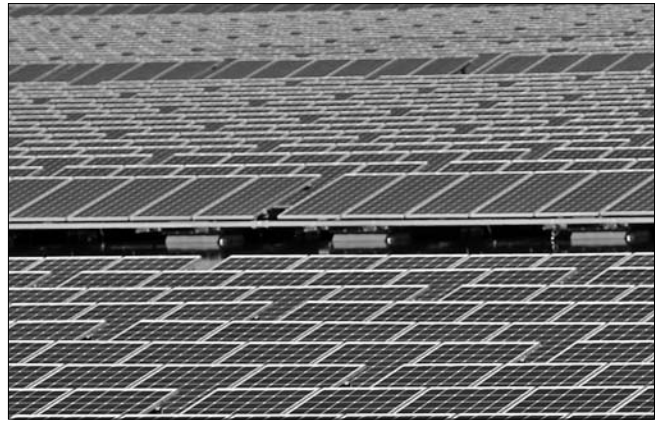
남성여고·이일여고 등 6곳

익산시(익산시장 정현을)는 “공공체치안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익산 만들기를 위해 익산경찰서와 협력해 ‘스마트 가로등’을 오는 4월까지 설치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스마트 가로등은 기존 가로등에 블랙박스를 결합하여 범죄 예방은 물론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복합 기능을 담

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익산시는 우선 익산경찰서와 함께 학교 주변 인적이 드물고 범죄 예방이 필요한 남성여고, 이일여고, 전복제일고 인근 등 6 개소에 스마트 가로등 16 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는 3월 초 접수된 제안서 심사를 거쳐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발전사로 한국서부발전을 선정했다.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발전사 ‘한국서부발전’ 선정

17일 이후 업무협약 체결 절차

군산시는 3월 초 접수된 제안서 심사를 거쳐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발전사로 한국서부발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발전사는 태양광발전사업에 충분한 사전지식과 전문적으로 축적된 사업역량을 집중활용 해 이번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자문과 전력 판매단가협의, EPC 공모지원 등의 제반업무를 시와 함께 수행 하게 된다.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제안서 심사는 △지역주도형사업에 대한 이해도 △시민참여율 및 시민수익을 등 시민참여계획에 대한 실행계획 △지

역 시공업체 및 기자재 활용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금번 제안심사는 2개 발전사가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라며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사의 수익률(E-ir)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혜도를 최대화한다고 제안해 그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한국서부발전과 17일 이후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협약체결 이후에는 공모를 통해 EPC(설계, 조달,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트라이스톤코리아 투자협약

외국인부품소재단지 2만5,501㎡에 69억원… 24명 고용창출

익산시는 16일 시청에서 (주)트라이스톤 코리아 오준표 대표, 정현을 익산시장,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외국인부품소재단지 투자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주)트라이스톤코리아는 금번 투자협약에 따라 익산 외국인부품소재단지 2만5,501㎡ 부지에 69억원을 투자해 24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으로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산단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트라이스톤코리아는 일본 PSITO社와 합자 기업으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스테인레스 강 제조에 필수적인 희귀금속인 저탄소 페로크롬 전문 업체이다. 페로크롬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8년 20억달러 1,310만톤에서 2027년까지

30억달러 2,000만톤으로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트라이스톤코리아는 연간 12,000톤 생산·판매를 목표로 2020년 11월부터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이날 “갈수록 어려운 국내외 사회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투자를 결정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익산의 외국인부품소재단지는 저렴한 임대료와 우수한 입지조건으로 국내 지자체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중 하나이다.”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환경 조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역 소식통

군산시 납세자 권리구제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군산시는 3월부터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지방세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산시는 국세와는 달리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불편함을 겪는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조세 운영 체계상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의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로,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납세자가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위해 대리인을 신청하면, 시는 세무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선정대리인을 선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군산시 집중 지도점검

군산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반찬 및 즉석식품의 소비가 급증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 대해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도시락, 샌드위치, 반찬류 등) 총 50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표시 등 영업등록 없는 업체에서 제조된 원료 사용여부 △영업장, 조리장 등 위생적 관리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보관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자가품질검사 대상 식품 검사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